

# 옛 들의 그 날, 새 들의 그 날

## -복음으로 여는 요엘-

요엘 1:1-4, 사도행전 2:16-21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그루터기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뿌리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다가 저희들이 세상 살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만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교회를 살리며 가정과 문화, 한국 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릴 만한 중요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서밋을 능가하는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복음 안에서 윈리스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한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이다. 요엘의 아버지의 이름이 ‘브두엘’이라고 나와 있다. 자녀들의 이름을 보통 부모님이 지어주지 않는가. 그러나 왜 브두엘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을까. 여기서 ‘요’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뜻이다. 모세가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전이 없다. 누가 이름 지어주실 분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 대답하셨다. 한국 성정은 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다 다르다. ‘엘로힘’ ‘엘 샤다이’와 같이 치료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있다. 그러나 ‘엘’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딱 한 분 밖에 없다. 그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이다. 이름 자체가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여호와만 창조주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다.’ 라는 뜻이다. 복음소식을 보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다. ‘오직 하나님만 신입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이 틀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냐고 말한다. 미치고 환장하겠더라(웃음)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맞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긴다. 그 신은 ‘엘로힘’이 아니라 거짓된 신이다. 마귀가 만들어낸 우상의 가면을 쓴 것이다. 참 신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오직 예수이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창문’과 ‘못’, ‘보다’, ‘손바닥’이라는 뜻이 있다. 히브리어 앞 말을 보면 ‘보라. 손바닥을. 거기에 있는 못을’이라는 뜻이다. 여호와라는 뜻의 그림의 상징이 바로 이것이다. 바로 예수인 것이다. 그 안에 모든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엘이라는 이름은 오직 예수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안 돼서 문제가 온 것이다. 요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유대 백성을 회개시켜서 징계와 저주의 날을 축복의 그 날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있는 말씀이 요엘서 2장 12절이다.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3일만 금식해 보라고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고민은 다 사라지고 딱 한 가지, 밥 먹고 싶어진다. 그 고민, 걱정, 갈등, 염려, 미움은 배물러서 그런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감사한 것인 줄을 믿는다. 갈등되면 하루만 금식해 보라. 미워지고 헛갈린다면 하루만 금식해 보라. 그러면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이 금식이 필요 없을 만큼 성령충만 하기를 바란다. 뭐하러 굶는가. 주께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로 결론 내지 않고 웃고 다닌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은 없다.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그 결과가 오직 예수로 결론난다면 여러분은 축복 받은 줄을 믿기를 바란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죄인이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이것이 축복이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날이 올 줄을 믿는다. 그 믿음의 날이 올 줄 믿기를 바란다. 어떤 코미디언이 있는데 나이 100세가 넘었는데 항상 웃고 다닌다. 그 분에게 하는 질문이 ‘어떻게 100세까지 그렇게 웃고 다니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참으면 된다고 한다.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문제 많고 이상한 사람 많은데.’ 물어보니까 ‘100세까지 사니까 다 죽

었어!”한다.(웃음) 여러분, 조금만 참기를 바란다. 다 없어진다.(웃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못 참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넘어진다. 인간적인 갈등인 것이다. 여러분에게 승리의 그 날, 응답의 그 날이 올 줄로 믿는다.

### 1. 잘못된 옛 들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아보자 한다.

(1)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다. 요엘서 1장 4절이다.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여기서 팔중이는 메뚜기과의 곤충이고 녹색과 갈색으로 두 종류가 있다. 가슴 쪽 등판에 X 모양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한다. 그리고 느치가 나오는데 몸길이가 6-10cm이며, 온 몸에 점무늬가 있고 쌀, 보리, 나무 따위를 해친다고 한다. 느치가 남기는 것을 황충이 먹는다고 했다. 황충도 메뚜기과의 곤충인데, 누런 갈색 또는 초록색이고 잡초를 먹고 살며 때로는 농작물에 해를 끼친다고 나와 있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는 것이다. 일본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이 있다. 일본이 너무 뒤쳐졌다. 카드를 사용하려는데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이다. 가게에서 선물용 빵을 사는데 정작 먹을 만한 과자는 별로 없었다. 선물용 빵만 예쁘게 포장되어있다. 다 선물용이다. 평소에 그 선물용으로 쌓여있는 것을 집에 가서 먹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 그곳에서 집회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다. 복음을 정말 전해야 할 현장인 것 같고 말씀드렸다. 무역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다. 의지했던 부분도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고, 지진도 일어나는데도 우상을 계속 섬긴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일어나고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다.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왜 우상숭배를 하는데도 왜 잘 살지?’ 생각했다. 가는 곳마다 기독교 대학, 방송, 신문 있는데 일본에는 상위 엘리트 층으로 기독교가 들어갔다. 신앙을 보면 일당백이다. 세계2차대전 이후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항상 회개하신다. 굉장히 믿음이 좋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니 경제적 축복도 무너지는 것이다. 바로 황충, 메뚜기, 느치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응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연약했던 일제강점기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권사님들의 기도덕분에 우리가 응답받은 줄 믿기를 바란다. 고모할머니가 계셨는데 글을 잘 모르신다. 그런데도 책을 꼭 펴놓고 계셨다. 언젠가는 거꾸로 책을 보고 계시더라. 배우지 못했던 것이 한이 되었던 것이다. 나이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눈이 아주 좋아서 버스를 잘 타고 다니셨다. “할머니, 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버스를 그렇게 잘 타고 다니세요?” 하니까 본인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옆에 사람이 말해주었다. “학생, 내가 눈이 나빠서 그런데 저 버스가 몇 번이야?” 하고 묻는다고 한다.(웃음) 그 분이 아직도 믿음이 좋은 태도 혼자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아버지. 아버지.’하고 기도하신다. 나는 굉장히 멀리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고모할머니는 옆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저 할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온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 ‘목사 기도는 안 들어주는데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분의 기도는 들어주시는구나.’(웃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왜 있는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이다. 요엘서 1장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복음 들어간 나라마다 다 잘 살았다. 영국이 지금 무너졌다고 하지만 굉장히 힘이 세다. 미국 못지않은 금융시장이 있고 세계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성경이 그곳에서 번역되고,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후대들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예수 할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오직 예수가 되면 된다. 여러분이 성격이 조금 부족해도 된다. 오직 예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내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되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을 떠나니까 전쟁이 터지는 것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땅의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 있다면 전쟁일 것 같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고 지는 것이 없다. 원자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라. 과거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오직 예수, 오직 복음하고 있지 않는다면 터질 것이 너무나도 많다. 중국에는 원자폭탄을 수백 개를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방법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오직 예수를 하고 만나면 복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 재앙과 저주를 막아주실 것이다. 요엘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라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민족은 바벨론을 말한다. 메뚜기가 먹는 것을 느치가 먹고 그 다음은 황충이

가 먹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이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듣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나 또 무너진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잘못 되면 10년이 날아간다. 특히 랩넛트들은 불신앙하면 10년, 20년이 날아간다. 늦더라도 조금씩 생각하지 말고 예배중심, 하나님중심, 복음중심으로 살기를 바란다. 절대로 늦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복음 전하며 살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살다가 깨지면 돌아올 방법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영적인 틀을 깨지 못한 유대민족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 약 150년 동안, 후대와 후대까지 포로생활을 하였다. 일본 목사님이 옆에 앉아 계시길래 몇 마디를 건넸다. “자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이 이렇게 제앙을 겪고, 앞으로 이 제앙이 일어날 것인데 이 제앙을 막아야 합니다.” 다락방 훈련받은 목사님들 중에서 일본 목사님들이 제일 훌륭한 것 같다. 그 목사님도 영적인 문제가 많았는데, 어머니가 복음 받고 치유되어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복음 듣고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말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이다. 계속 언약의 말씀을 전달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믿음만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믿음이 없어. 흔들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잘못된 틀을 깨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고,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9절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 드는 제사장은 슬피 하도다.’ 무슨 말인가. 남복이 분단이 되어서 마음이 아프다. 북한의 장대현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서있는 곳이다. 그 안에서 통합측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예배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와 목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소제와 전제,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끊어진 것처럼 예배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전체 카톨릭이 있는데 신대원을 줄 업한 동기 1/3이 사라졌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랜잡은 친구들이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 목회하다가 어디가서 어떻게 예배드릴까.’ 생각이 들었다. 신학대 목사가 되면 예배드릴 곳도 없다. 카페도 하고 가게도 한다. 선배 한 명이 있는데 목회 안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사진들을 올린다. 주일이 되면 그 카페에서 예배드린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와의 수종을 드는 제사장들이 슬픈 상태가 되는 것이다.

## 2. 만약 우리들이 잘못된 옛 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틀로 거듭난다면 그 날에 우리들과 후대들은 어떠한 응답을 받게 될까?

(1)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그들을 극진히 사랑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조금만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안 쓰는 말인데 ‘극진한 사랑’ 이 눈에 띄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2) 흠직한 경제적인 축복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다. 요엘서 2장 19절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흠족하리라.’ 그 언약의 축복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모할머니의 동생이 있는데 그 분도 하나님 밖에 모른다. 그런데도 가난해서 길거리 장사해서 자녀들을 키웠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 무슨 말인가. 그 기도가 분명히 흠족하게 응답될 줄을 믿는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야지 훌륭한 믿음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을 떠나서 질병, 어려움, 부족함이 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다 회복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1부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천국에는 다 필요 없다.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스트레스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주름살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 부도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 오직 예수 한다면 모든 응답을 주실 것이다.

(3) 모든 백성들이 미래를 앞당겨 볼 정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날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이었다. 요

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CVDIP이다.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여러분도 그 날이 올 줄을 믿는다. 여러분이 결혼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취직하는 그 날, 대학에 합격하는 그 날이 온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다. 30명을 영접하는 그 날이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는 그 날이 와야 한다. 나의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청년 한 명이 있는데, 보통 휴대폰 배경화면에는 아이돌 사진, 여러 가지 사진들을 배경화면 해놓는데 그 청년은 ‘완전치유’라고 적혀있다. 여러분도 완전하게 치유되는 그 날이 올 줄을 믿는다. 어떤 분은 강단메시지 안 들리다가 눈 뜨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했는데 강단말씀이 들리는 그 날이 올 줄을 믿는다. 그러다가 후대가 3단체를 능가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서밋, 서밋 하더니 바누아투에서 그 서밋들이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날이 왔구나.’ 느꼈다. 계속 올 줄 믿는다. 후대들이 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날, 3천제자의 응답을 받는 그 날이 올 줄을 믿는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날에 천국에 가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서 그 날, 마지막 때가 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다.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지만,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지옥 가는 날이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날들이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

## 결론이다. 오늘도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CVDIP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의 언약이 희미해진 유대민족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반대로,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을 믿는다.
2. Vision, 비전이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이 되면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성취될 것이다. 237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을 받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다고 말하고 있다. 꿈은 젊은이들이 꾀야 되는데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다고 본문에 나와 있다. 그 루터기인 어른들은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후대들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날 그 날을 기대하는 언약적인 꿈을 꾸기를 바란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그 꿈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는다.
4. Image, 이미지이다. 미래의 이미지가 앞당겨 보일만큼 우리는 성령충만을 받아야겠다. 요엘서 2장 28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는 확실히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한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미래에 응답 주실 것이 환히 보이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100%확신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 ‘될까, 안 될까.’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하면 되겠다.’ 하면 된다는 것이다. 호주에 갔는데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든 것이다. ‘택시도 없네. 후진국이네.’ 생각했는데 앞에 있는 아줌마가 오더니 택시를 잡는다. 어떻게 하나고 하나고 어플을 깔아서 미리 택시를 불러드리는 것이다. 일본에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앞으로 우버가 실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한다. 시대의 플랫폼을 알고 될 수밖에 없음을 봤을 때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화가 확실히 보이고 이를 위해서 3서밋의 응답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해야겠다. 우리는 옛 틀을 깨는 작은 실천을 해야겠다. 류 목사님은 틀을 깨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틀을 깰 수 있을까 생각했다. 옛 틀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300명에게 복음 전해보라. 처음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 지혜, 지식을 다 깨지 않으면 안 된다.
5.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실천(Practice)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된다. 그 방법은 요엘서 2장 29절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가능해질 줄 믿기를 바란다. 그 시간표가 온다. 만나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질 때가 온다.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남자 사명자, 여자 사명자, 전도자인 것이다. 이 사건이 오순절 날의 마가다락방에 임한 축복이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날들이 응답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날들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중한 요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로 결론내고,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요, 모든 날들이 응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